

## 2026 봄 워크숍 <해방의 온도> 품평회

\*품평회는 과거를 탓하는 자리가 아닌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. 원색적인 비난은 지양하며, 개선 방향에 관해 얘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

\*마찬가지로, 품평회는 공적인 자리입니다. 개인 간에 가졌던 감정은 이후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\*품평회는 칭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. 공연 준비 과정에서 좋았던 부분에 관해 얘기한다면,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.

이름: 홍예진

역할: 배우 (송혜연 역)

1.<해방의 온도>를 함께 하면서 느낀 점	
마지막 워크숍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뜻깊은 한 달이 되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 아쉬운 점도 많은 연극이었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행복함을 느꼈으니 만족스럽습니다. 한 달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!	
2.피드백(워크숍 공연을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점)	
연출	김혜림
우유부단함이나 확신을 잘 내지 못하던 점은 많이 개선이 되었으나,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연 전날까지 블로킹이 수정되어야 했다는 점 같습니다. 더 좋은 극과 더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라면 필히 수행되었어야 할 수는 있으나 공연이 24시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블로킹 수정을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너무 컸다고도 생각이 듭니다.  본 공연은 무사히 잘 마무리 되었지만, 다음에 연출을 하시게 될 때에는 공연 전날 블로킹 수정은 참가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	
배우	서준혁 최연진 홍예진

준혁&연진 - 조금 우려되는 마음에 하고싶은 말이 있습니다.

배우는 몸 컨디션이 생명입니다. 다음날 연습이 있음에도 새벽 늦게까지 따로 연습을 진행하거나, 무리해서 노는 모습을 보며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. 물론 연습에는 크게 지장이 가지 않았으나,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20대 초 이기에 가능한 일 일수도 있습니다... 다음번에는 무리한 연습은 조금 삼가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 외의 피드백은 없습니다.

예진 - 감정은 좋으나 전달력이 아쉽다. 감정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에 전달력이 없다면 관객들은 배역의 상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수 있다. 발음 교정을 조금 더 성실히 하거나, 배우로 나갈 생각이 있다면 발음 교정 학원을 다녀보는 것이 어떨까... 발음 관련 피드백을 많이 많이 들어 온 만큼 더 열심히 전달력과 발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수정해나가보면 좋을 것 같다.

스텝	김윤희 김연우 이은채
----	-------------

없습니다.

### 3.~에게 하고 싶은 말

연출	김혜림
----	-----

한 달 동안 연출 하느라 고생 많았다! 무대 관련으로도 신경 쓸 게 많았을테고, 배우 쪽으로도 신경 쓸 게 많았을텐데 하나 하나 차분히 해나가면서 해결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진 것 같아. 앞으로도 계속 연출을 할 생각이 있다면 그 때에도 지금처럼 다정하고 빛나는 연출로 남아있었으면 좋겠다. 휴학해서 이제 얼굴 자주 못 보는 게 아쉽다... 몸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 기회에 또 보자!

배우	서준혁 최연진 홍예진
----	-------------

준혁이 군대 잘 다녀오려무나... 너랑 연기 같이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 자주 했었는데 이번  
에 기가 막히게 같이 연기하고, 무대를 올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. 맨날 준혁이 놀리  
고 괴롭혔지만 그것은 다 너를 좋아해서 그런 거... 알지? 모르면 아쉬운거지ㅎ... 아무튼  
공연 올린다고 고생 많았다. 선흥이가 쉬워보이는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네가 잘 살린 것  
같다. 군대 갔다와서도 계속 배우로 활동 해주기를 바란다.

연기 처음 해본다고 했던 연진이... 기본적인 발성이나 발음 같은 게 좋아서 처음 하는 것  
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았단다. 그만큼 재능도 있고, 연기를 즐기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  
어. 앞으로 계속 배우로 활동해줬으면 좋겠다.ㅎㅎ 같이 엄마와 딸로 호흡을 맞추면서 내  
가 이래저래 너를 곤란하게 만든 적도 많지만... 그럼에도 항상 잘 이야기 해줘서 고맙다.  
다음에 동방에서 얼굴 또 보면 좋겠다!

스텝

김윤희 김연우 이은채

여러모로 수고 많았습니다... 윤희가 소품으로 만들어 준 코끼리 인형과 옛판, 십자가가 없  
었다면 허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각자 집이나 당근으로 구해와 준 라디오, 빨  
래 바구니, 선풍기 등 자잘한 소품들도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렇게 쉽게 구해서 무대에 올  
릴 수 없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일 큰 업적. 가벽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. 워크  
샵에서 가벽을 볼 줄 몰랐다는 말이나 가벽으로 집을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하다는  
말도 들었어요. 모두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들을 수 없었던 말들이지 않나 싶습니다.

음향이나 조명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.. 음향 찾아서 편집하는 거 힘들었을텐데 잘 찾아  
서 마지막까지 힘내서 편집해준 은채와 혜림이와 민서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  
리고 조명... 저희 팀이 제일 조명 큐 많았다고 들었습니다. 타이밍 맞춰서 배우가 돋보일  
수 있도록 멋진 조명 디자인 해주어서 고맙습니다. 특히 무빙라이트 조명이 인상적이고  
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밤 새가면서 조명 메모리하고 포커싱하고 한다고 고생한 혜  
림이와 연우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

다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!!!!